

등부림

어깨 넘어
손닿지 못하는
등이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세상 사는 것이
몸부림이라면
살을 이어가는 것은
등부림의 연속이다

등이 휠 정도로
힘겨운 삶의 짐을 지고
허겁지겁 달렸던
후유증일 것이다

이제 그 삶의 버거운 짐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다
하지만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 등부림이 멈출 수가 있을까

약력

한국시시 등단(1997), 시향문학회·나주문인협회·전남문인협회·한국문인협회 회원, 나주문학대상 수상·녹조근정훈장 수훈, 시집 '바람의 연가' 등 출간.

감상 노트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허락하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 했던가. 김시인의 시처럼 삶은 몸부림과 등부림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생은 온 곳도 가는 곳도 모르기 때문일까. 등이 휠 정도로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자기다운 향기를 뿜으며 살다가 훗날 돌아가는 생애는 인간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김원재

대흥사 동백꽃

그 - 어느 누가 볼까 봐
녹음 속에 짙게 숨어 있다가
찬 서리 머리에 이고
수줍은 아낙네의
입술처럼 붉게 핀
동백꽃...
따뜻한 봄날에
벌 나비 불러 모아
굴 잔치 열어 놓고
가는 세월이 아쉬운 듯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향기, 미소 버리지 않는
해남 대흥사 동백꽃



오현철

약력 한맥문학시 등단(1990), 한맥문학회·한맥작가회·문학공간·한국문인협회 회원·전남문인협회 이사·해남문학회 회장 역임, 전남문학상·이동주문학상·전남예술상(문학부문) 수상, 시집 '천생연분으로 맺은 사랑'·'시가 있는 시골 창고' 등 출간.

감상 노트 해남 대흥사의 동백꽃과 상사화는 다녀온 사람에게서 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피안교에 모가지 채 떨어져 텅두는 꽃잎을 보고 쓴 글을 읽은 적도 있다. 긴 여를 푸른 잎으로 지새우다가 찬 서리 맞으며 그리움으로 피어나는 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누지 못해 그리 났었다. 가. 불타는 꽃잎으로 간절하게 연인을 기다리다 스러져간 '춘희'의 여주인공 마르그리트의 애절한 이야기도 함께 물어온다.

영경귀꽃

빛장 열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치자꽃 향기 출렁이는
낮선 산자락 둔치에
변변찮게 지내온
허기진 영혼
우부룩한 영경귀꽃
산허리에 감긴
작은
산새 소리에
깜짝 놀라
모질게 가시를 세우는
애절한 내 영혼



전종주

약력 월간 한국시 신인상 시 등단(1995), 공주사대 국어교육과·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졸업, 순천문인협회·전남문인협회 회원.

감상 노트 여름에 자주색으로 피는 영경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아온 야생화로 여러 가지 전설을 지니고 있다. 가시 돋친 겉과는 달리 고운 빛깔로 피어있는 모습이 시혼의 원천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다. 전설 속 소녀의 낮이 젖소가 되어 물어먹기에 먹이가 안 되려고 가시를 세우는 야생화의 생명력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고독한 사람의 영혼이 전해진다고 오래도록 여운진다.

가을비를 맞으며

마당귀의 몇 폭 국화가
노란 향불을 지피고

고이 잠든 낙엽 위에
눈물 같은 가을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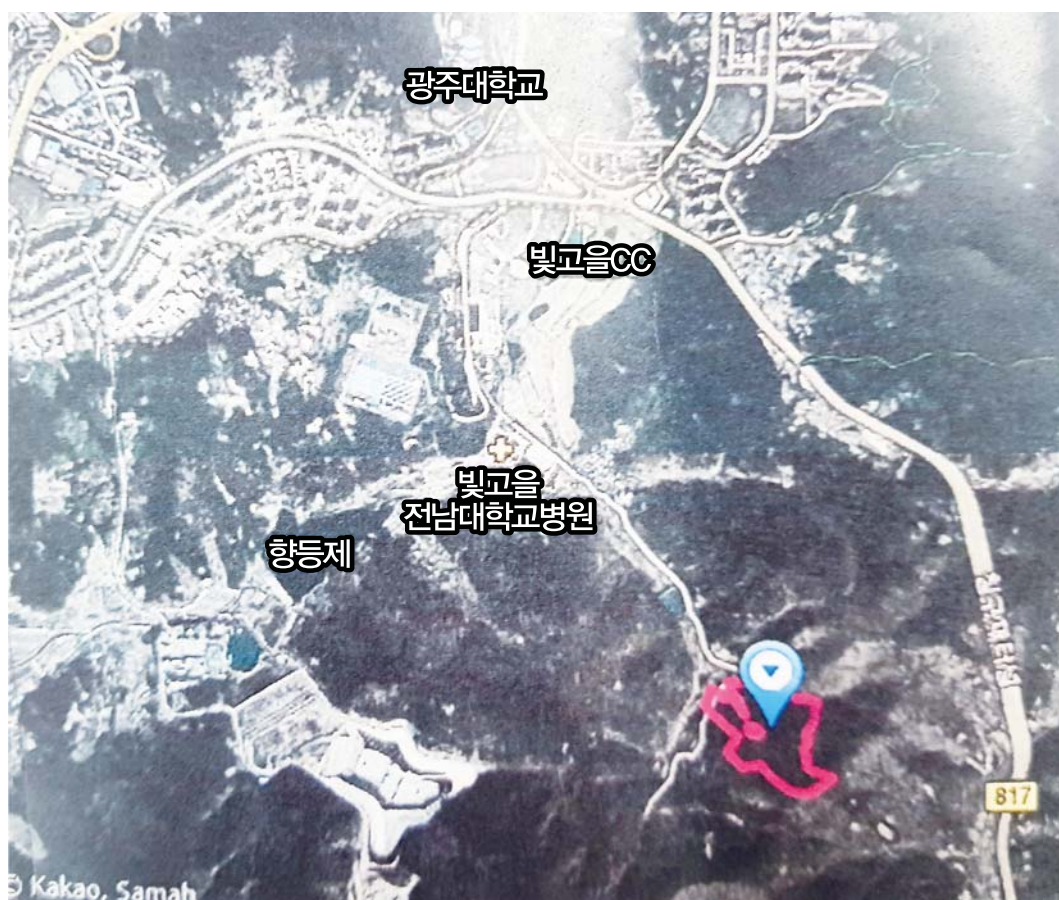
바람은
외로운 내 창문을
그지없이 여닫는지.



오재열

약력 이호일송(一松), 한국언어문화학회·한국문인협회 회원·시류문화회 회장·호남시조문학회 회장·광주광역시시인협회 회장 역임, 시조문예대상·광산문학상·광주시문학상·광주문학상·아름다운 문학인상·아시아서적문학대상·대한민국향토문학상 수상, 시집 '들꽃의 노래'·'머물다 가는 구름'·시조집 '어머니 당신의 고향' 등 출간.

감상 노트 가을비에 젖은 나뭇잎이 소슬하다. 노란 향불을 지핀 국화 향이 스산한 이 계절, 시인은 외로움에 창가를 서성인다. 가을이면 잠자던 서정이 눈을 뜨는지,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생의 의욕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감성이 고개를 든다. 평범하게 느끼고 살아왔던 삼라만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고, 태풍이 곳곳에 상처를 내고 몰라갓지만 삶의 수레바퀴는 변함없이 가던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